



- 크리스마스 아웃리치
- 주안에 라이프 종강
- 성탄절 행사
- 칼럼 / 간증

##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 ... 홈리스, 푸드트럭 봉사 크리스마스 아웃리치 ...

성탄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선물을 나누어주며 복음을 전하는 매우 귀한 행사를 실시했다. 주안에교회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다양한 선물을 주고받는 모두에게 기쁨이 되었고 다민족을 직접 만나 복음을 전하는 귀하고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 <관계 기사: 4면>

■ 신년특별새벽집회

# 헌신



■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소식

## 사랑의 쌀 나누기 후원모임 성황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은 자신의 소유를 서로 나누어 주고 통용했던 초대교회(행 2:42~47)의 정신을 본받아 우리 생활의 기본인 쌀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운동이다.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자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남가주교협)가 주최하고 있는 사랑의 쌀을 나누어 주기위한 모임 '제 6차 사랑의 쌀 후원의 밤'이 지난 12월 16일(화) 약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LA 한인타운 소재 가든 스위트 호텔에서 있었다.

남가주교협 회장 최혁 목사는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은 지역사회에의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쌀을 나누어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참 유익한 캠페인이다. 특히 이번에는 후원에서 배포까지의 전 과정을 모든 분



들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하고 마켓에서 쌀을 받아 가실 수 있도록 쿠폰제를 실시할 것이다."라며 사랑의 쌀 나눔 운동에 임하는 마음과 계획을 밝혔다.

연말과 새롭게 시작하는 한해를 맞이하여 우

리 주안예교회 성도들도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다수의 성도들이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함께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 공태용 기자 |

■ 2015 사역국 리더모임



### ■ 순종과 섬김으로 아름다운 주안에 공동체를 ■

지난 12월 7일 오후 벨리체플에서 2015년 새로운 부서로 임명 받은 국장 부장 팀장들의 모임이 있었다. 벨리와 세리토스의 모든 사역 부서의 리더들이 모여서 각자의 결단과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세리토스채플 새가족국 여성 국장으로는 홍일점인 김옥희 집사는 “순종하려는 마음, 그 한 마음으로 섬기고 편안히 정착하게끔 기도

하고 섬기겠다”고 다짐을 하였고 미디어국장으로 장경출집사가 임명을 받았으며 “부족한 인원을 보충, 효율적인 체제를 갖추고 영상과 오디오 기능을 향상시켜 예배가 아름답게 드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벨리체플의 교육국장으로는 지난해 이어 연임한 라형철 국장은 “어린 심령을 잘 키우고

사랑받는 부서로 섬기겠다”고 하나님께 선언하였으며 2015년 임마누엘 성가대 장기연 국장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성가대원들과는 하나가 되며 교회에는 본이 되는 성가대를 이끌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함께하였던 리더님들이 한결같이 하나님께 충성과 봉사를 다짐했던 귀한 모임이었다. | 공태용 기자 |

■ 양로병원 심방



### ■ 환우들 찾아 크리스마스 감사예배 다과 나눠 ■

몸이 불편해 예배에 나올 수 없는 성도들과 양로병원에서 생활하는 연로한 어른들을 찾아 함께 예배 드리고, 위로해 드리는 연말 심방이 12월중 3차례 있었다. 이재조, 주석희 전도사와 김준억, 윤종화 장로, 그리고 10여명의 권사, 여집사들이 동행했다.

먼저 2일 캐시태어 케어센터를 방문, 오병순 집사의 기타 연주에 맞춰 크리스마스 캐롤과 찬송을 부르고, 준비해 간 다과를 나누었다. 일부 몇몇 성도님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다. 이어 16일에는 헌팅턴 양로병원을 찾아 예배

드린 후 준비해 간 200여 켤레의 목양말을 선물하고 환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22일에는 엘콧양로병원을 방문해 임원해 있는 교우들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방마다 환자들을 찾아 격려하고 축복했다. | 조용대 기자 |

■ 성탄절 아웃리치

■ 한 해를 보내고 맞으며



## 예수님 본받아 소외된 이웃 속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주안예교회는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준비된 선물이나 음식을 나누어 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12월 25일 오전 9:00시에 세리토스 비전 채플에 집합한 참가자들은 이성우 전도사의 찬양과 안내 및 주의사항 전달, 이 케이시 목사의 사영리 및 전도요령 소개 후 팀별 명단을 확인하고 사역지로 이동하여 계획된 봉사를 실시하였다.

참가자들이 봉사한 사역지는 LA 다운타운 지역에 위치한 Boys & Girls Club, Skid Row 지역, 맥아더 공원 등이다. 총 참가인원 170명이 사역지에 따라 3팀으로 나누어 참가자들은 각각 배정된 장소에서 준비된 선물, 음식, 식료품 등을 나누어 주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맥아더 공원 봉사팀원들과 Boys & Girls 봉사팀원들은 먼저 아침에 아버지 창고(LA 다운타운 소재)로 가서 그곳에서 창고에 보관 중인 다양한 샐러드, 과일, 야채, 고기, 생선, 빵 등 물건들을 분류하여 정리한 후 필요한 양을 차량에 나누어 Boys & Girls Club 지역과 맥아더 공원으로 팀별로 이동했다.

LA 다운타운 인근 빈민 거주지역에 있는 Boys & Girls Club 근처로 이동한 봉사팀은 박정환 목사의 인도 하에 흠 리스 분들과 주변의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과일, 야채, 빵, 샐러드 등 다양한 식품들을 나누어 주며 예수님의 사랑과 사영리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도록 전도하는 행사를 가졌다.

맥아더 공원 S, Park View St.으로 이동한 봉사자들은 이현욱 목사의 인도 하에 준비해간 여러 종류의 과일, 야채, 빵, 샐러드 등 다양한 선물들을 흠 리스 분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보람된 성탄절을 보냈다. 도움을 받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어린아이에서 노인

이르기까지 장애우와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며 노숙자들로부터 어려운 생활형편의 사람들이 참가하였다.

LA 다운타운 Skid Row 지역 5th와 Crocker St. 그리고 6th와 Julian St.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팀은 이 케이시 목사의 인도 하에 준비해간 모자, 목도리, 스카프, 장갑, 양말 등 500명분의 선물을 나누어 주며 복음을 전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케이시 목사는 매우 뜻 깊은 행사였다고 "1 회성에 그치지 말고 횡수를 늘려 많은 성도들이 봉사와 전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현욱 목사는 "휴일임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즐거이 섬기시는 모습들을 보며 감동을 많이 받았다"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박정환 목사는 "어려운 지역의 주민들에게 직접 선물을 전달하고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실질적으로 전도에 동참할 수 있어서 기뻐다. 이러한 귀한 행사가 단회적인 행사로 마치게 됨이 아쉽다.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사였으면 좋겠다"며 한번으로 마치게 됨을 아쉬워하고 지속되기를 기대했다.

전체적으로 금번 크리스마스 아웃리치는 주안예교회의 아름다운 전도 및 봉사활동으로 기억될 것이다. 벨리와 세리토스 채플의 성도들이 연합하여 함께 봉사하며 주안에서 사랑과 우의를 나누고 서로 교제의 시간을 함께 했으며, 특히 많은 청년들이 참가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과 어린 자녀들까지 우리 주안예교회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더 많은 커뮤니티 봉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주안에서 교우들이 하나되는 사역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김경일 기자 |

## 연단과 훈련의 시간 이젠 다함께 도약을

2014년 한해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해였습니다. 2013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낮설지만 새롭게 시작한 해였다면 2014년은 하나님께서 주안예교회를 더욱 강하게 단련 시키며 힘있게 달려가도록 인도하신 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받을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성전을 향하여 뛰어온 한 해였으며 교구 식구들은 물론 너무나 많은 귀한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하며 마음을 나누게 된 2014년이기도 합니다.

주안예힐링캠프가 새롭게 시작되면서는 산장에서 주옥같이 쏟아지는 말씀의 은혜와 서포터즈들의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은 비록 섬기는 채플은 달라도 우리는 하나라는 확신을 강하게 받게 하였습니다.

2014년을 돌아보면 주안예교회를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이 한 걸음 한 걸음 성취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교회가 성장 부흥하는 것을 막으려고 사단이 끊임없이 교회의 가는 길을 막는 다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아무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2015년은 주안예교회가 힘차게 뛰어 가며 도약할 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할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부흥되어 우리의 영혼이 기뻐할 것입니다. 이제 확실하게 정착한 주안예말씀과 양육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되어가며 평신도 인도자를 통하여 수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올 것도 기대합니다. 새롭게 다가오는 2015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의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될뿐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과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너무나 행복하고 기다려지는,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며 달려오는 주안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방걸 장로

■ 주안에 라이프 봉사를 마치고



## 15명의 봉사단원들 정성 다한 ‘웰빙서비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안에 라이프 제 1기 12주가 무사히 끝남을 감사 드리고 여든들을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감사드리고 건강하여 봉사할수 있음을 감사 드립니다.

처음이라 경험이 없어서 걱정도 많이고 기도도 많고 염려가운데 시작했는데 그 염려와 걱정이 괜한 우려였습니다. 시작하고 보니 우리 주안에교회 일꾼들이 다 모이셨습니다. 대장이신 김수연 집사님을 비롯해서 봉사팀 15명이 매주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매주 시장 보시느라고 수고하신 김수연 집사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세일하는 식재료를 찾으러 대여섯 군데 마켓을 다니셨고 팀원들 수

고를 덜어 주려고 집에서 밀손질을 다해 주셔서 우리가 일하기 편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더하고 싶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여기까지만 합니다.

케이시 목사님 취지가 어르신들이 배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교와 식사도 중요하다고 하시고 설문조사까지 해서 싫어하시는 식재료는 될 수 있으면 안썼습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이 음식이 맛있다고 부엌까지 들어오셔서 칭찬과 격려를 해주실 때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해하실까봐 호텔처럼 풀 서비스로 대접을 해드렸고 음식도 웰빙으로 조미료도 안쓰고 매주 다른 메뉴로 식단을

준비했습니다. 감사진도 좋고 음식도 좋아서 주안에 라이프 노인대학에 오시겠다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대요. 2015년 3월에 제 2기가 시작하오니 많은 분들이 등록하시면 후회함이 없으실 겁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또한 우리 봉사팀도 주안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은혜 가운데 12주가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2014년 후반기를 보람되게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고 케이시 목사님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안에 라이프 스텝 모두 사랑합니다. 특히 우리 주안에 라이프 봉사팀 화이팅!!!

| 김권희 집사 |

### < 주안에 라이프 1기 종강발표회 >



■ EIKON 뮤지컬 'We Three Spies'



## 크리스마스 기쁨 전파... 신나는 음악·감동의 메시지

EIKON에서 준비한 “WE THREE SPIES” 뮤지컬이 주안예교회 성도들을 성탄절로 안내했다. 이 뮤지컬을 위해 학생과 선생님들이 장장 석달동안 준비했다. 준비기간이 길었던 만큼 결과물도 그 시간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말하는 인형같이 작고 예쁜 아이에서부터 이제 숙녀티가 완전한 예비숙녀들이 한 맘이 되었다.

크리스마스 인텔리전스 키즈(C.I.K)라는 비밀 조직에서는 해마다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세상에 전파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올해 우리 주안예교회에 찾아와 함께 임무수행을 하게 되었다.

어린 시절 받고 싶었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지 못하고 이후로 크리스마스를 싫어하게 된 헤릿 킹여사가 CIK에게 자신의 건물에 입주한 세입자들이 크리스마스 축하 행사를 준비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의뢰를 하게 되었다. 이런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메이플 선생님과 세입자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물질이 아닌 마음을 나누는 진정한 크리스마스 정신에 헤릿킹여사도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이웃과 함께하는 참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므로 CIK의 임무는 성공적으로 완수하게 된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린 의례적으로 선물을 주고 받는다. 지난 1년 미안한 마음 감사한 마음 등 여러 마음을 담아 선물을 주고 받는다. 그러나 이 뮤지컬에서 이야기하듯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선물은 바로 창조주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품으로 입고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셨다는 것. 이 크나큰 선물이 나오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엄청난 선물을 기억하며 나누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했던 그러나 잊고 있었던 메시지를 어린 학생들이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

크리스마스와 상관없이 연말이 주는 약간의 흥분과 설레임에 휩싸여 삼삼오오 짝을 지어 쇼핑몰을 다니고 영화관을 찾으며 시간을 보낼 때 우리 아이들은 이 뮤지컬을 준비하기 위해 교회를 제집처럼 드나 들었고 세상노래보다 가스펠을 듣고 불렀으며 의식하고 마음을 열었

던 무의식 중에 찬양을 했던 하나님을 경배하며 지난 3개월을 보냈다. 이렇게 크지도 빠르지도 않은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 이 아이들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몇해 지나지 않아 이 아이들이 우리 주안예교회의 주축이 되고 기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 지금 우리는 좀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었으면 한다. 요즘 한국에서 개봉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의 명대사가 있다.

“나는 그래 생각한다. 힘든 세월에 태어나가 이 힘든 세상 풍파를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격은기 참 다행이라고...”

세상도 말한다. 내 자식의 세월은 내 세월보다 나왔으면하고... 크리스찬인 우리의 바람은 더욱 간절하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주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것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더 열심히 아이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고 텃밭이 되어주어야 한다. 이 간절함이 모여 우리아이들이 우리의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뛰어놀았으면 좋겠다.

| 채은영 기자 |



■ 초중고등부 성경퀴즈



학년 구분 없이 같은 문제, 유초등부 1, 2, 3등 '이번'

지난 12월 11일과 12일 세리토스와 벨리체 플 교육부 주관 성경퀴즈대회가 있었다. 아이들은 한달 전부터 예상 출제문제지를 받았고 그 문제지가 달토록 공부한 아이들과 받은 그 자리에서 잃어버리고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잠깐 잠깐 귀동냥하는 아이들까지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각자 준비한만큼 지식을 뽐냈다.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1등을 향해, 공부를 하지 않은 친구들은 충분히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혹시나 아는 문제만 나왔으면 하는 작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퀴즈대회에 임했고 본인이 탈락한 후에도 답을 적적 적어 내는 친구들에게 박수를 아끼지 않으며 응원하는 모습이 참 예뻐다.

이번이라고 할 수 없는 이번은 중고등부 학생들을 제치고 어린 유초등부 아이들이 1,2,3등을 휩쓸었다는 점이다. 작년만 같아도 어린 아이들과 중고등부를 함께 테스트하는건 불공평하다고 불평하던 불평을 했던 유초등부 아이들이 지난 1년만큼 훌쩍 커서 올해는 너무도 덩달아 자리에 임했고 보란듯이 상위권을 휩쓸었다.

순위를 차지한 어린아이들의 수상소감도 딱 그 나이에 어울리는 말들을 해주었다.

1등을 차지한 초등학교 5학년 조한비양은 1등 상품인 태블릿을 정말 갖고 싶었다고 했다.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님과 어린 손녀가 갖고 싶다는 태블릿을 선물해주고 싶었던 할머니가 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다고 말하는 아이의 얼굴에 행복감이 가득했다. 할머니가 태블릿을 사주셨어도 엄마 아빠가 반가워 하지 않을꺼란 생각에 내심 걱정하던 차였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스스로 태블릿을 얻었으니 어린 마음에 기쁨

이 두배가 되었던 모양이다.

2등을 한 변시안양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다. 좀 더 놀고도 싶고 TV도 보고싶은데 해야만 하는 성경퀴즈공부가 즐겁지만은 않았다고 솔직한 속마음을 드러냈다. 그래도 성경퀴즈를 열심히 준비해주길 바라는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뒤로 하고 문제지를 손에서 놓지 않고 지냈다고 한다. 이런 시안이를 지켜본 교회 친구들은 성경퀴즈에 임하는 시안이의 눈에서 총기가 넘쳐났다고 했다. 한 문제도 놓치지 않으려는 아이의 집중력이 생각보다 대단했던 모양이다.

퀴즈대회 당일 출제되는 문제마다 화이트보드에 적적 적어낼 수 있을 때 성취감이라는 단어를 알지도 못하는 아이의 마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차올랐다고 말했다. 1등은 아니지만 2등을 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리모트 콘트롤되는 로봇장난감을 받고 스스로 생각해도 자랑스럽고 뿌듯했다고 한다. 열심을 내라고 말해준 엄마에게 열심히 하라 격려해줘서 감사하는 말도 잊지 않았다.

3등을 한 풀김은 이제 유치원생이었다. 본인이 무엇을 왜 해야했는지 아직 다 알 수도 없는 어린아이였고 손에 쥘 상품이 마냥 신기한 순진한 어린아이였다. 지금 이 어린아이 기억 속에 자리잡은 성경 속 인물이나 사건들이 이 아이의 인생에 크고 작은 역할을 할 것을 우리도 풀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시작점에 있는 풀의 인생에 이 성경지식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 믿는다.

이런 의외에 결과를 보라보며 어린아이들의 하나님을 향한 본인들도 다 알지못한 열정에 감사한 마음과 이 아이들의 마음에 알게 모르

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작업에 동참한 부모님들께 격려의 말을 전하고 싶다. 또한 우리가 놓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필요충족조건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자이던 강압이던 부모님이 하란다고 다 해야 했던 유초년기를 지나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자기 주장이라는 것이 생기고 나름 부모님 말씀을 거절할 용기(?)가 생기면서 부모와 자녀 간에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게 된다. 부모님이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우선시 하는 청소년기의 중고등부 학생들의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해 보인다. 성경퀴즈뿐만 아니라 교회활동, 신앙생활에 활력을 심어줄 많은 장치들이 필요하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눈높이에서 생각하며 흠어진 아이들의 시선을 교회 안으로, 하나님 품으로 끌어와야 하는 숙제를 남긴 성경퀴즈대회가 승자에게도 패자에게도 즐거운 다음 여정을 열어준 시작점이 되었으면 한다.

| 채은영 기자 |



■ 양육훈련을 수료하고...

한번의 성경통독을 통해 아직 많은 것을 얻고 깨닫지는 못하였습니다. 다만, 그 수많은 말씀 중에 “~일흔번씩 일곱번도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미국 이민생활 초기 5년간 많은 시간을 이전 교회의 사역에 열심을 다하며, 장년이 되어 미국서 뜨겁게 다시 만난 주님의 사랑이 계속되고, 사업과 가정에 행복한 시간 또한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말씀 위에 서지 못한 저의 신앙 생활은 썩브 프라임 경제위기에 정말로 보잘 것 없는 촛불과도 같았습니다. 제 간증은 거짓이 되고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아니, 원망과 눈물의 기도도 저를 버리신 주님과 멀어지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6일 교구 예배에 처음으로 초대되어 구역원 간 쉼어한 저의 기도제목은 여전히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마침 최목사님의 구역 방문으로 10분도 안되는 면담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멀어졌던 하나님  
말씀 통해 다시 만나



황종섭 집사 (세리토스 통독 2기)

울게 된 저희에게 손을 잡으시며 “주님이 두 집사님께 연단의 시간을 주신거 같군요!” 하시는 목사님 한마디의 위로가 주님이 주신 말씀 같았습니다.

회개의 눈물은 일주일이나 지나도 열흘이 지나도 멈춤없이 계속되었고, 운전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자며, 꿈꾸며, 회개의 눈물이 계속되어 몇 달 동안은 아침엔 개구리 눈처럼 퐁퐁 부은 채로 회사를 나가기 일쑤였습니다.

제 2기 주안에 말씀을 우리 구역식구들은 총 여덟 분이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구역장님과 구역식구들이 같이 함으로 힘이 되어 지치지 않고 잘 마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고, 보이는 결과에 치우쳤던, 그리고 교만에 찻던 지난날의 잘못 되었던 신앙 생활을 이제는 저로 하여금 항상 쉬지말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분의 사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안에교회 출석 후, 왜 제가 이전 신앙생활에서 실패한 자가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좀 더 명확히 알게 되었구요. 온전한 신앙을 가지려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사탄의 쉬운 먹이거리가 된다는 것도요. 하여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초신자처럼 겸손히, 당연히 그리고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흔번씩 일곱번이라도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니, 그 분도 이미 수천번의 죄를 지은 저를 용서하시고 계셨다는 그 은혜를 저는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다시는 어두운 곳에 떨어져 홀로 살고 있다는 오해없이,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 가겠습니다. 주안에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은 늘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에 목사님 시디를 통해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라는 “인사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하며 시작한 면담은 주체할 수 없는 복받침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전 제 마음 속으로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 교체하며 한 없이

먼저 풍요로운 삶 훈련을 받을 기회를 주시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풍요로운 삶 1, 2, 3권을 은혜가운데 잘 마치게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받은 은혜를 간증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주안에교회를 새로 섬기며 은혜는 받고 있었지만 아직 모든 것에 서먹서먹할 즈음에 풍요로운 삶이라는 성경공부가 있고 우리교회 교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여 훈련 받으라는 광고 말씀에 저희 부부는 등록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즈음 밖에서는 저희 교회에 대한 소문과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 소문 중에는 저희 교회 목사님은 성경공부는 필요없다하시고 설교만 잘 들으면 된다고 말씀하신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던 중 이어서 이긴 뭐지? 라는 의구심과 그럼 무엇을 공부하는 걸까? 또 내가 가서 직접 참여해 보고 그 이야기를 전해 준 사람에게 전해 주어야겠다는 마음 등 여러가지 마음으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상처 받은 마음 위로  
받은 은혜 나누며...



최정화 집사 (밸리 주삼 3권 수료)

여러가지 마음 고생이 심했던 제게 풍요로운 삶을 하는 시간들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교재를 통해서 제 지난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고 회개도하고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과의 나눔을 통해 도전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데 저에게 무엇보다도 큰 의미는 교재를 통해 받는 위로였던거 같습니다. 어지러운 마음으로 인해 어떤 날은 울기도 하고 어떤 날은 흥분하며 화도 내고 속상해할 때 함께 하시는 여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위로가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본인들도 다 겪은 일이라며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비록 속제이기에 하는 거룩한 독서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직접 저에게 주시는 위로가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주안에교회를 섬기며 풍요로운 삶 3권까지의 과정을 마치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소감문을 통해 제 지난간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적용해 보고 앞으로의 결단도 하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남편과 함께 훈련을 받았기에 거기에서 받은 은혜도 참 귀하고 좋았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보다 제가 먼저 믿었고 성경을 아주 조금 더 안다는 자만심으로 이것저것 믿지 못하고 따지려 드는 남편에게 짜증도 내고 어쭙잖은 조언을 늘어놓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함께 공부하면서 저보다도 더 열심히 클래스를 기대하고 참여하고 성경을 읽으며 은혜받는 모습에 제가 더 은혜를 받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결코 제가 결단하고 계획을 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저희 부부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풍요로운 삶을 통하여 받은 은혜와 평강이 삶 속에 늘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웃에게도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 속에 풍성히 적용되게 하셔서 제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삶 가운데서 능력있게 역사하셔서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양육훈련을 수료하고...

비전채플에서 금요일 7시 45분에 통독하는 반에 등록했었는데 금요일 저녁 시간은 다른 때에 비해 교통혼잡이 심한 편이라 매주 허겁지겁 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겨우 제 시간에 도착하거나 2~3분 늦기가 일쑤였습니다.

모두 성경을 펴고 고개를 숙인 채 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는 모습이 마음을 울컥하게 할만큼 감동적이었습니다. 일사불란한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2시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한 마음이 되어 한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는 것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옆에 앉으신 분들을 알지도,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지만 같은 마음으로 자리에 있다는 생각에 정감이 들었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성경을 읽어도 되지만 굳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통독을 하는 것에는 분명 "함께 하는" 은혜가 있음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 절절



양지혜 집사 (세리토스 통독 2기)

알게 되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통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세상 나라들과 구별하시기 원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자기 소견에 옳은대로 행하여 죄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분노하시며 심판을 경고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계속 읽어가다가, 선지자들을 통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의 부르심에 가슴이 저러왔습니다. 이번 통독이 끝나면 말씀 가운데 이런 부분들을 깊이 묵상해 보고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곤 했었는데 이제 거기에 하나가 더 보태졌습니다. 선지서들을 읽으면서 가슴 먹먹했던 하나님의 처절하고 애절한 사랑의 부르심의 말씀이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기도와 더불어 3겹줄이 되어서 저의 삶을 그분께서 더 든든히 세워가시리라 믿습니다.



주안에 삶을 많은 어려움과 마귀의 달콤한 속삭임 속에 시작하게 되었으며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풍요로운 삶을 등록할 때 나의 의사가 아닌 가족들에 의해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와 딸의 성화에 못이겨서 도전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엔 내가 하는 일이 좀 한가해지면 또 마음이 내키면 시작하면되지 왜 그리 재촉하여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시작이 반이라고 1,2,3권을 모두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성령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가족에게 감사합니다.

1과를 마치면서 내 자신을 알고는 있지만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었으며 진흙 속에서 보물을 캐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내가 얼마나 교만하였으며 모순 투성이었는지 하나님께 회개와 많은 반성으로 이 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 성화로 시작  
변화된 내 모습에 감사



임경순 집사 (세리토스 주삼 3권 수료)

그리고 제 2권을 시작하면서 처음 생각과 달리 조금씩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활에서 지켜나가야 할 문제들도 세상적인 삶이 아닌 영적인 삶 즉,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말씀에 준하는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고 마음 속에 차곡 차곡 쌓여져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3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가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내 마음 속엔 다음 기회에 하리라 생각하였는데 아내가 등록을 하였다고 하기에 짜증과 심통을 부렸는데 마음의 생각이 그래서인지 그때 몸살감기로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잘된 일이라 생각하고 리더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고 다음 기회에 하겠다고 나의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몸조리나 잘하라고 하시며 전화를 끊었는데 웬지 마음 속에 미안함과 송구스러움, 그리고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이틀이 지났는데 구승환 집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철석 내려 앉는 기분으로 이제는 피할 수 없게 되었구나 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집사님께서 몸은 회복되었느냐고 물으시면서 개인지도를 하여 줄테니 시작할 수 있느냐고 물어오셨습니다. 그때 상황은 난감하였으나 거절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집사님이 열정과 정성에 숙연해짐을 느꼈으며 그순간 나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나도 마음이 더욱더 자라 집사님처럼 남을 배려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3권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길이 있는 말씀을 알게 되었고 봉사과 헌신으로 내 이웃을 위한 것이며 주안에 필요한 교인으로 교회와 교역자를 잘 섬기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려 다짐하면서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교회에 필요한 일꾼으로 남고 싶습니다. 또한 나의 앞으로의 삶은 성경읽기와 기도에 힘쓸 것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활만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본분을 다할 것입니다.

■ 성탄시

아기 예수(탄생일에)

이정은 목사

골고다를 짊어지고 말구유에 누우신 사랑의 왕 아기 예수	Carrying 'Golgotha' on his back Laying in a Manger King of Love Baby JESUS
황금, 유향, 몰약의 죄 가시관의 상처 입은 만왕의 왕 아기 예수	Gold, Frankincense, Myrrh of Sin Wounded by Crown of Thorns King of Kings Baby JESUS
버림받은 영혼들 십자가 숨결로 되살린 평화의 왕 아기 예수	Lost spirits Saved by the Breath of the Cross King of Peace Baby JESUS
부활의 제단 위 번제물 어린양 되신 승리의 왕 아기 예수	Resurrection on the Alter Sacrificed baby Lamb King of Victory Baby JESUS
호산나, 구세주 말구유에 태어나신 영광의 왕 아기 예수	Hosanna, The Savior Born in a Manger King of Glory Baby JESUS

■ 뒷마당 가꾸기



싱싱한 아채 직접 재배, 과목 심기 적기

길어진 수명을 질병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누구나의 바람이며 특히 하나님으로 부터 받은 귀한 육신을 잘 보존하여 주님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몇가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는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식생활 조절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며 육류를 섭취 할 때는 반드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함께 먹어야 하는데 농약이나 제초제 등에 오염 되지 않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어야 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얻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우리의 정원 중 일부를 이용하여 텃밭 가꾸기를 하면 됩니다. 또한 아주 값싼 식재료를 얻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1월에 해야 할 '과수원지기' 일들〉

A. 채소 심을 발 준비

\*버려진 자투리 땅이나 잔디밭 일부를 잡초를 제거하고 삼 하나 깊이만큼 판 다음 "Amendment"라는 채소용 거름 흙과 원래 발 흙을 1:1 로 섞어 놓습니다. 2월 중에 모종이나 씨앗을 심으면 됩니다.

B. 과일나무는 1월-5월 사이에 심으면 좋습니다.

\*1월에 묘목이 많이 나오므로 구입하기 좋은 때입니다.

\*남가주에서 권장할 과일나무: 단감나무, 대추나무, 복숭아나무, 매실나무, 뽕나무, 레몬나무, 오렌지나무, 민다린, 아보카도, 석류나무 등

나형철 장로  
(업타운 너서리 운영)

주안에게교우

비즈니스 소개

**coway**

- \* Bidet
- \* Water Purifier
- \* Air Purifier
- \* Water Softener

**황은숙 (Deborah)**  
Pro HP  
COWAY USA INC.  
**Cell : (949) 874-8825**  
**Fax : (714) 739-4354**  
7800 Commonwealth Ave. #201  
Buena Park, CA 90621  
www.coway-usa.com

**이 사 라**  
Suk Lee  
US 9636650  
Franchise Consultant

**ageLOC™**

**NU SKIN.**  
THE DIFFERENCE DEMONSTRATED™

**PHARMANEX™**  
A Natural Healthcare Company

3700 Wilshire Blvd, #265 L.A.CA  
Cell : 818.648.1224  
E-mail : sarah27814@gmail.com

**HISCO** 히스코 자동차 그룹

일할 수 있는 사람, 일할 수 있는 가격

"주안에 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필요하신 차를 저렴하게 드립니다."

- ▶ 모든차 구입과 리스
- ▶ 경제적하고 승급없이 할수있습니다
- ▶ 통학하는 곳에 직접 내근에 드립니다.
- ▶ 일본승용차부터 큰 트럭까지 전차종 취급

**권문상 (Joshua Kwon)**  
대표  
Dealer Number : 99371

hiscoauto@gmail.com | Cell : 714-357-7070 | Phone : 310-530-7979

**John Koo**  
General contractor  
949 374 0311  
jkoo89@hotmail.com

**All Goodman Construction Co.**  
Sincere, Honest, Experience, Knowledge, Trend, Sense

Addition, Remodeling, New const., Landscape Repair, Maintenance, Any type of construction

Lic # 965466  
Bond, Insured, Warranty



“오 놀라운 구세주” 찬송가 446장 A wonderful Saviour is Jesus my Lord

작사: 화니 제인 크로스비 Fanny Jane Crosby(1820-1915)/ 작곡: 윌리엄 제임스 커크패트릭 William James Kirkpatrick (1838-1921)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 시로다 ~큰 바위 밑 샘 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매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찬송을 부를 때면 그 은은한 선율과 노랫말에 우리의 영혼이 맑게 적셔지는 것 같습니다. 어딘가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 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 있다는 안도감과 함께... 작사가 화니 J 크로스비는 이 곡을 비롯하여 8,000여편의 찬송시를 쓴 찬송가의 여왕입니다. 우리 통합찬송가에도 그가 쓴 찬송곡이 무려 23편이나 실려 있습니다. 찬송가 산책#5 “예수 나를 위하여”에서 화니 J 크로스비에 대해 잠깐 소개 했지만 이번 호에는 좀 더 자세히 고통과 아픔을 극복한 그녀의 영광된 일생을 재조명해 보려 합니다.

그녀는 1820년 3월 24일 미국 뉴욕 주의 작은 마을 푸트남에서 태어났습니다. 생후 6주되던 때 돌팔이 의사의 잘못된 약물 치료로 맹인이 되어 95세까지 어둠 속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녀는 눈이 멀게 된 이후에도 제대로 의사의 치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한 살 되던 해에는 그를 끔찍히 사랑했던 아버지 존 크로스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화니가 11살 되었을 때는 그녀를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할머니 유니스 크로스비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화니는 가난과 슬픔에 버려진 불행한 아이였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화니의 하나 남은 혈육인 어머니는 어린 화니에게 항상 신앙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곤하며 그녀를 키웠습니다. 또한 화니 주변에는 그녀에게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23년동안 학생으로 또는 선생으로 머물고 있던 뉴욕의 맹아학교는 화니에게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사랑을 불어넣어준 곳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성경을 배웠고 천로역정을 비롯한 문학작품을 배웠으며 역사, 철학, 과학을 배우고 노래와 울간과 기타와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마침내 화니 크로스비는 유명한 시인이 되었고 유명한 찬송가 작사가가 되었습니다. 38세 되던 1858년 3월 8일 그녀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던 맹인 교수 벤 엘스턴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도시를 떠나 시골에서 지내며 자연을 벗삼아 서로에 대한 깊은 헌신과 사랑으로 그윽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낳은 귀여운 아기를 병으로 잃게 되고 만 것입니다. 1859년의 일이었습니다. 아이를 잃고 슬픔에 방황하던 화니와 벤 부부는 다시 뉴욕 맨하탄으로 거처를 옮기고 화니는 다시 모든 열정을 다 쏟아 찬송시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화니는 불행하기만 한 사람이었을까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보다 슬프고 아픔으로 얼룩진 사람을 만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았습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오히려 그녀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녀의 한 평생은 이토록 수 많은 슬픔과 고통과 아픔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녀는 거의 한 번도 원망이나 불평이나 증오의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화니는 항상 좋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무한하신 자비를 굳건히 믿으며 찬양시를 써 왔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것이라면 무엇이더라도 감사하게 여기며 살아왔기 때문에 가슴에는 항

상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만년의 화니는 간증자와 전도자와 설교자로 군림하였는데 그의 설교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축복과 인생의 구원과 기쁨에 대한 메시지로 가득하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에게 태양빛과 같은 기쁨을 주면서 깊은 영감을 일으켰습니다.



화니 크로스비가 90세가 되었을 때는 영적인 삶에 있어서 최고의 해였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잔이 넘치는 풍요한 시간들이었다고 합니다. 어느날 그녀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수많은 청중들이 교회당을 꽉 메웠습니다. 그녀는 장미꽃이 가득한 작은 탁자에 서서 그 꽃들을 만지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삶의 마지막 때에 당신을 만나게 되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나는 황혼이 아닌 영원한 일출(日出)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소망의 별들이 지난 50년 보다 더 선명하게 지금 내가 걷고 있는 밤길을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시든 꽃이 아니며 오히려 부유함과 아름다움을 보여 줍니다. 그 빛은 나의 삶의 아침을 밝혔고 낮의 왕성한 활동을 뽐내게 했으며 어두운 저녁시간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인 1915년 2월 12일 금요일 아침에 급성기의 가장 뛰어난 찬송가 작사자인 화니 제인 크로스비는 95세를 일기로 조용히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 서세건 기자 |

● 사업체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

성도님들의 사업에 도움을 드리고 교우 상호간 서로 돕기를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사업체 광고란을 마련했습니다. 광고비는 6개월 단위 \$150이며 광고수익은 선교 구제헌금으로 사용됩니다. 문의: (323) 810-9853, icccnews123@gmail.com

**Flower Factory / Uptown Nursery**



과일나무  
실내 식물  
정원 나무 • 정원 공사

Tel: 213.382.9777 • 213.389.1388  
E-mail: oaksfastfoto@hanmail.net  
294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COVERED CALIFORNIA** Certified Insurance Agent 공인 에이전트

Cell. **213.713.9191**

Sang B. Kwon 권상복  
sangbkwon@gmail.com  
CA Ins. Lic #0H59734

생명보험, 건강보험, 은퇴연금, 사업체보험,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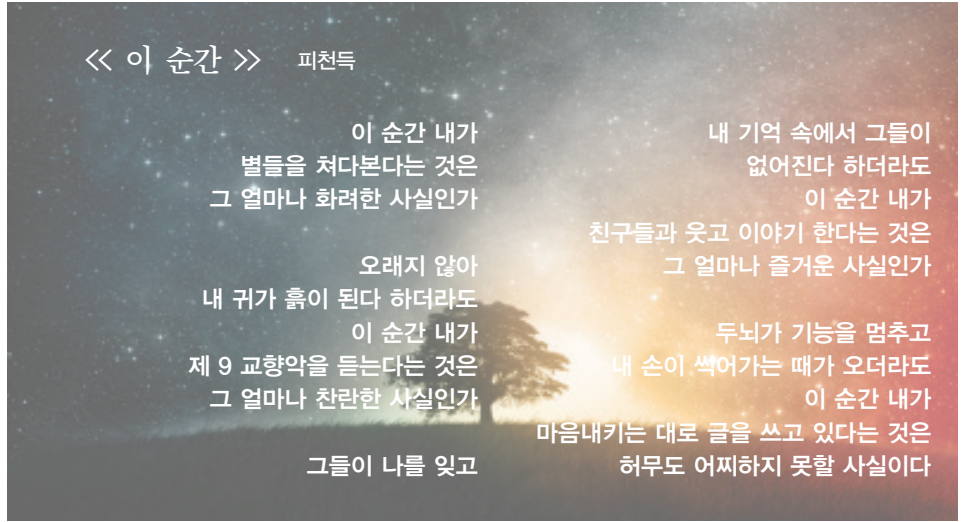
■ 문학과 삶

## 축복으로 주어진 생을 향유하고 감사하며...

금아 피천득은 한국 현대수필 1세대를 대표하는 수필가이자 시인이고 영문학자였다. 담백하고 향기로운 그 분의 글은 평생을 단아하고 순박하게 사신 그분의 삶의 모습 같다. “맛과 멋의 삶은 리얼과 낭만과 같아서, 맛은 몸소 체험을 해야 하지만, 멋은 바라보기만 해도 된다”고 하신 분. 그래서 자신은 지치기 쉬운 맛보다는 멋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하신 분이시다.

‘이 순간’은 시이면서 수필의 향이 느껴지고, 수필이라 하기엔 과분하게 시적이다. 수필은 과연 진실을 향해 다가가는 자기성찰을 꾸밈없이 보여주는 문학이라 늘 마음에서 가깝다.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나는 새로이 깨닫는다. 빛나고 향기로운 내일만을 꿈꾸느라 이 평범하고 무덤덤한 오늘을 낭비하지는 않았던가. 영원만을 추구하고자 찬란한 미래만을 꿈꾸며 살아온 못난이가 아니었던가. 이 순간의 진실과 깨달음으로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영원을 만나는 길임을 모르고... 이 순간의 삶의 의미와 진실을 찾는 일이 인생



《 이 순간 》 피천득

이 순간 내가 별들을 쳐다본다는 것은 그 얼마나 화려한 사실인가

오래지 않아 내 귀가 흠이 된다 하더라도

이 순간 내가 제 9 교향악을 듣는다는 것은 그 얼마나 찬란한 사실인가

그들이 나를 잊고

내 기억 속에서 그들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순간 내가 친구들과 웃고 이야기 한다는 것은 그 얼마나 즐거운 사실인가

두뇌가 기능을 멈추고 내 손이 썩어가는 때가 오더라도 이 순간 내가 마음내키는 대로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은 허무도 어찌하지 못할 사실이다

을 아름답게 꽃피우는 일인걸... 새해를 맞으며 나는 피천득의 <이 순간>의 한 구절 구절을 가슴 깊이 새겨넣는다.

| 서미숙 기자 |

# 2015 January

1/1(목) 성찬식 (밸리/세리토스채플)	1/29(목) 정기 제직회 (세리토스채플)
1/4(주일) 신년감사예배/구역모임	1/30(금) 정기 제직회 (밸리채플)
1/28(수) 세리토스채플 주안예배OT(장소:비전채플)	1/31(토) 밸리채플 주안예배 OT

### “주안에” 2015년 1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구, 구역,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이메일: ic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에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공태용, 공수옥, 김경일, 김헬렌, 라형철, 박창신, 새라 리, 서미숙, 서세건, 오철호, 이현주, 조성운, 조용대, 조이 메기, 채은영, 최민애, Annie Yun, Susie Kim (기자)

안동윤, 브라이언 조, 정안섭, 김다슬 (사진) | **편집디자인:** 김윤영

##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 주일  
예배

세리토스채플/ 오전 9:30, 11:30  
밸리채플/ 오전 8:00, 9:45
- 영성  
집회

목요영성집회/ 저녁 7:45 세리토스채플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밸리채플
- 새벽  
예배

밸리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세리토스채플/ 새벽 5:30 비전채플

**밸리채플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세리토스채플 Cerritos Chapel** 13808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비전채플 Vision Chapel** 12631 E. Imperial Hwy #F134, Santa Fe Springs, CA 90670